

자기 내어줌

‘자기 내어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원수를 향한 적대감을 소멸하는 길은 어떤 법적 조치가 아닌 그리스도처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상대방과 하나 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북한 관련 정세 이야기

근래 북한 당국은 기존 북한 체제로부터 이완되고 흩어지는 징후를 보이는 이른바 ‘새세대’의 사상적 결속에 힘쓰고 있습니다. ‘새세대’란 소련 붕괴 이후인 1990년대 중반 식량난이 극심했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난 북한의 청년층을 가리킵니다. 이른바 ‘장마당 세대’라고도 부릅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국가의 배급이 아닌 ‘장마당’ 즉 시장을 통해 생존해왔습니다. 이들에게는 사상과 이념보다는 돈이 최고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이들은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북한의 통제 이완과 남북 교류 활성화를 통해 자본주의적 사고와 ‘한류’의 큰 영향을 받은 세대입니다. 이미 2021년에 북한 노동당의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청소년들이 자본주의 생활양식에 물젖지 않도록 사상교양과 통제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2021년 9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청년교양보장법’을 제정하여 청년에 대한 사상적 통제와 생활적 검열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7일 자 노동신문에서는 “새세대들의 가슴속에 투철한 반체제급 의식을 깊이 심어주어 그들로 우리의 사상과 제도와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해치려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처갈기는 계급의 전위투사로 준비시켜야 한다”라면서 청년들의 반사회주의 혹은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더욱 단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 당국은 각 도·시·군·연합기업소 선전선동 담당 간부들의 강습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20일부터 4일간 평양인민문화궁전에서 ‘조선노동당 제2차 선전부문 일군(간부) 강습회’에서는 김정은의 사상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 대한 사상적 단속과 결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이미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함으로써 남한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에 규율조사부와 법무부를 신설하여 주민들에 대한 미시적 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북한 주민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가둘 수 있을까요? 과연 북한이 법과 사상교육만으로 새로운 세대의 의식을 통제하여 북한 체제에 결집시킬 수 있을까요?

기도제목

하나님 아버지, 통일시대를 살아가야 할 북한의 다음 세대들이 인간의 권리를 존중받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통일시대를 살아가야 할 남한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인 북한 동포를 사랑하며 선교하는 비전을 품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의 화목, 교회 성도 안에서 화목,
적대하는 북한 주민과 화목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통일선교기관의 특별기도 제목

(모퉁이들 선교회)

모퉁이들선교회는 1985년부터 북한을 중심으로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제한된 지역
에 성경을 배달하고, 신학교 사역으로 현지 지도자를 세우며, 국내외에서 선교사를 훈련하
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지하교회 개척과 구제, 방송으로 말씀을 배달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2년부터 전체가 재난 상태에 놓인 북한에 문이 열릴 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12개 분야(예배와 기도, 재난구조, 어린이와 청소년, 화해, 트라우마 상담,
북한교회 재건, 성경 및 문서, 라디오와 미디어, 스포츠와 예술, 교회 건축, 리더십, 지역사
회 개발)의 사역에 따른 '복음통일 매뉴얼'을 준비하고 세계교회와 선교단체, 한국교회와 연
합하여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북한에서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
옵소서.
2. 훈련을 받고 북한으로 파송된 성도들과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현재 왕
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을 통해 북한 안에 자생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북한어로 번역된 성경이 북한에 보내지도록 문을 열어 주시고, 성경이 필요한 북한 성도
들에게 전달되도록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4. “지금이 최악입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최근 접하고 있는 북한 성도
들과 주민들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보내질 수 있도록, 나아가 보
내진 식량과 물품이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
소서.
5. 북한의 문이 속히 열려 주민들이 하나님을 자유로이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 나눔

본문: 에베소서 2장 13-17절

“13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오늘 본문은 원수 된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하여 하나가 되는 길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13절의 ‘이제는’이란 단어는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소망도 없고 구원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음을 가르쳐 줍니다. ‘멀리 있던’과 ‘가까워졌느니라’라는 대조적인 표현이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 이방인이 가까워지고 화목하게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리스도의 피’(13절)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14절)이십니다. 화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모든 인간적 시도는 한계가 있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의 화평은 인간들 안에 쌓아놓은 수평적인 담을 허무는 능력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혈통적·민족적·문화적·종교적·이념적 장벽을 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 버리시고”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15절에 ‘폐하셨으니’와도 연결됩니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서로 원수가 되게 한 장애물 즉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자기 자신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16절에 ‘이 둘을 한 몸으로’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한 새 창조를 의미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새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는 말씀은 원수를 향한 적대심이 십자가로 소멸될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먼 데 있는 너희’인 이방인과 ‘가까운 데 있는 자’인 유대인이 십자가 안에서 화목을 누리고 평안의 복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적용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서로 적대하는 한반도의 상황에 대한 적용입니다. 남북한은 지난 70여 년간 분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한반도 분단의 벽인 DMZ는 동서로 약 240km에 걸쳐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남북한 사람들 안에는 그보다 더욱 높은 마음의 벽인 38선이 새겨져 있습니다. 멀리

있는 북한 사람과 가까이 있는 남한 사람 사이에 세워진 장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만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자신을 내어주기 시작할 때, 분단의 역사는 통일의 역사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날 갈등하는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적용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교회공동체가 갈등과 분쟁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고소·고발하며 세속법의 처분에 자신을 내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향한 적대심은 법으로 사라지거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미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내어주셨듯이 자기 자신을 내어줄 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일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자입니다. 그러므로 백 데나리온의 빚을 갚지 못하는 자를 감옥에 보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수를 먼저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자신을 내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길만이 서로를 향한 적대심을 사라지게 하고 화평을 가져옵니다.

신학적 관점

신학자 미로슬로브 볼프(Miroslav Volf)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메시아는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써 통일성을 만들어 내신다”¹⁾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통일성은 각 사람이 자신의 특별한 정체성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자기 내어줌 가운데 형성하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고유한 정체성을 ‘신성한 폭력’과 ‘법에 따른 통치’로 지우지 않으며, 그에 대한 적대심을 자기 자신의 내어줌을 통해서 소멸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몸에 새겨진 차이를 지워 버리지 않으며,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똑같이 그리스도의 한 몸에 접근할 수 있게” 하십니다.²⁾

볼프는 아브라함과 바울을 비교함으로써 한 몸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식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한 민족을 이룹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헌신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함께 다녔지만, 바울은 ‘믿음의 자매 된 아내’(고전 9:5)와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민족의 선조였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바울에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갈 3:8)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새로운 자손으로 다인종 공동체의 기초를 놓습니다. 이는 혈통이 아닌 믿음의 순전한 영성을 통하여 공동체의 통일성이 ‘민족’이라는 특수성에서 ‘다문화’라는 보편성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³⁾ 볼프는 이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혈통적 약속

1) 미로슬라브 볼프, 박세혁 역, 『배제와 포용』, (서울: IVP, 2012), 72.

2) 위의 책, 73.

3) 위의 책, 64.

의 성취인 동시에 하나님께 접근하는 특권으로서의 혈통적 마침표다.”⁴⁾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의 통일성을 추구합니다. 그 통일성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즉 그분의 철저한 자기 내어줌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통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 자신을 내어줄 때 시작됩니다.

그러면 분단국가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남북한이 하나 되는 통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과 사랑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의 여러 갈등 속에서 세상 법정에 의지하여 고소·고발하는 것을 멈추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자신을 서로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내어주는 모임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라 창조적 하나 됨을 우리 한반도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4) 위의 책, 68.